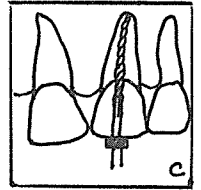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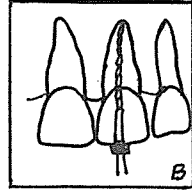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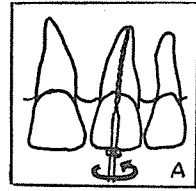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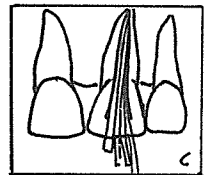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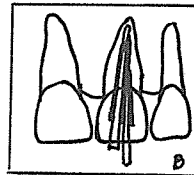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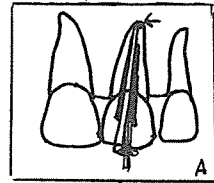


치과 임상가이면 누구나 근관치료는 치과임상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러나 귀찮고 힘들다는 생각은 한번쯤 해 보았을 것으로 믿는다. 사실 근관치료는 현실적으로 교과서에 있는대로 잘 치료해 보아도 그 댓가가 형편없고 또 적당히 해 줘도 지금까지 별 탈없이 지내왔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있는가, 보철할때 덤으로 해줘도 상관없는 치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임상가들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본인만의 오산일까? 본인이 제 31 회 대치협회주최 종합학술대회에서 본의 아니게 근관치료에 활용되는 최신기재에 대한 강연을 한적이 있었으며 그때 강연 직후에 가장 아끼는 후배 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형! 그기재 임상에서 하나도 쓸모없는것 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게 강연하십니까? 그 후배의 말이 현재 임상에서 사실일지도 모르나 문제는 본인이 최신에 활용된다고 소개한 모든 기재는 선진외국에서는 오래전 부터 사용되어 왔고 필수적인 것들이었다는 데 있는것 같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 우리치과의사들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되었을 뿐아니라 국민들의 구강보전에 대한 관념도 매우 높아져 있다. 이에따라 우리 임상가들도 양질의 치과시술을 환자들에게 제공해야될 때가 온 것으로 믿는다. 실제 임상에서 근관치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근관을 근단공까지 뚫어주고 넓혀서 철저히 밀폐시켜주면 대부분의 치근단 병소는 없어지고 치아는 보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근관이 근단공까지 뚫리지 않는 치아는 근관치료가 될수없다고 생각하면 근관치료를 어렵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며 근관을 뚫어서 잘 폐쇄시켜주는 수고는 임상가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된다고 굳게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본 난에서는 임상에서 근관치료를 해야되겠다고 결정한 치아에서 근관을 형성(뚫는)하는 방법과 그 폐쇄방법을 치아별로 앞으로 몇회에 걸쳐 논하고져 한다.



- A ; 처음 근관의 넓이에 맞는 reamer 등을 working length까지 도달하여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킨다.
B ; 그후 A보다 한 size 큰 reamer들을 사용.....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구를 사용한다.
C ; Gutta percha로 충전시는 적어도 # 40까지는 확대시켜야 된다.



- A ; 근관내에 spreader를 넣고 치근단쪽으로 정해진 길이가 될때까지 민다. master cone의 끝 2~3mm까지 도달해서 cone을 형성된 근관내로 압축한다.
B ; spreader에 의해 생긴 공간에 보조 cone을 넣는다. 다시 spreader사용해 cone을 압축한다.
C ; 계속 보조 cone을 사용해 근관내의 공간을 다 채운다.

서울市認定第89号

戰友齒科技工所

代表 池榮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23~23

☎ 92-8926, 93-0051